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9133
----------	------

제안연월일 : 2025. 3.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	4499	송석준의원 등 12인	2024.10.02.	상정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4.11.04.)
				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17.)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3.19.)
2	5438	박준태의원 등 10인	2024.11.11.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17.)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3.19.)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3. 19)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3. 19.)는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흉기를 소지하고 도로나 공원 등을 배회할 경우 사회 일반에 공포심을 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6조의3(공공장소 흡기소지) <u>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u> <u>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u> <u>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u> <u>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u> <u>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흡기를</u> <u>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u> <u>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u> <u>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u> <u>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u> <u>다.</u>